

科總會長 就任式 祝辭

科學技術振興위한 새롭고

마침 長官께서 國會 經濟科學審議委員會에 出席하시게 되어 부득이 長官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會長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科總이 새로운 會長으로 閱覽植박사를 모시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就任辭를 통해 閱박사께서 “말머”라는 것을 처음 듣고 알았는데 말머해에 나섰고 또 금년이 말머 해라서 아마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會長 취임을 쾌락해 주신것이라 느꼈습니다. 또 閱박사 말씀이 원래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과학기술분야에서 봉사를 하실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閱박사는 政界에 계시거나 政府閣僚로 계시거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活動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늘 훌륭한 成果를 올리신 분입니다. 이러한 閱박사께서 科學技術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시고 就任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科學技術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학기술자 윤리요강을 낭독했지만,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와 비슷한 團體가 他分野에도 많이 있는줄 압니다. 教育者를 총망라한 「대한교육연합회」가 있고, 文化藝術人을 총망라한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도 있으며, 言論人은 「신문발행인협회」라던가 「신문편집인협회」가 있으며, 商工人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등 科總과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같은 분야의 분들이 단합하여 전문적인 지식으로써 국가정책결정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자가 갖고있는 전문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國家와 社會에 奉仕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地位의 向上을 위해서 共同努力한다는 취지로서 단체가 組織되었고 또 存在하고 活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단체들이 各部處 공무원, 장관을 격려 편달하고 政府에 건의도 해서 장관이나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 분야사업이 활발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法을 만들어 國家政策을 세우고 豫算을 얻는데 큰 役割을 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가장 專門的인 專門人들로 構成되어 있고 또 科學技術이라는 特殊性을 勘案하더라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設置目的에 符合되는 活動을 많이 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 責任의 大部分을 科學技術處가 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科技處를 代表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꼭 송구스럽고, 또 次官이 그런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科總도 새로히 閱會長을 모시고 마치 다른 단체들이 하듯이, 우리 科學技術處만 격려 편달할 것이 아니라 政府전체에 격려 편달을 해서 科學技術界 全體가 活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科學技術振興이라는 새로운 政策方向이 設定될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바탕을 造成하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이번에 새로 모신 閱覽植박사가 會長에 就任하셨다는 것은 특히 多幸한 일입니다.

具體的인 活動바탕 造成을

저는 이번에 國際會議가 있어서 海外에 출장을 나갔다가 어제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閱박사께서 회장이 되시고, 또 오늘아침에 취임식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한 회의는 뉴질랜드의 웰링톤에서 열린 아세아대양주 전체국가들의 과학기술협력기구 총회였습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그러한 종류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참석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國力, 國際的인 地位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지 않고 그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느낀것은 아세아 대양주에 있는 모든 나라들, 물론 여기에는 國際機構의 대표들도 참석했지만, 여기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모두가 다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그 바탕이 한국 과학기술의 진흥에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마음속으로 캥길 정도로 우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등 많은 찬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번회의에 참석해서 정말 우리의 國力이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장해 가는 국력을 여러나라들이 높이 평가하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일본대표까지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상당한 경이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이 자기네 나라의 경쟁국가가 될것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년도에 있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생각으로 위에도 말씀드리고 갔었는데 일본도 개최하겠다고 해서 경합이 붙었습니다. 일본이 최후수단으로 현지대사까지 동원하여 간접적인 압력을 넣었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하겠다고하면 한국에 개최권을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마지막순간에 일본이 양보를 해서 명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다른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한국에 와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閱박사께서 지적하셨듯이 140여개단체중 불과 60여단체에 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했느냐 또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대우가 합당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꼭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새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단결, 협심해서 우리 과학기술단체들의 총의를 전달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金允基회장님은 옛날 제가 교통부차관으로 있을때 장관님으로 모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회장으로 계시면서 어려운 처지에 會館을 완성시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도 많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민관식박사의 회장취임에 축하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8년 3월 7일

科學技術處 李 昌 錫 次官